

*experience*  
**Life As Mission**

144th, Summer, 2022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 인 터 서 브 프렌즈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_ EMK

느슨한 육하원칙으로 보는 "미션얼" \_ 지성근 목사

미션얼 패밀리 인터뷰 \_ 정연철 부산 이사





이 여름,  
누리게 하소서.  
당신이 주신 터에서  
수수하고 소박하게 살며  
다른 생명을 아끼고  
서로를 돌봄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 INCA 피조 세계 돌봄을 위한 기도문 중 발췌

\*INCA 는 인터서브와 함께 피조세계돌봄을  
실천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임입니다.

# contents

## Value

변혁의 공동체  
Transforming Community

- 04 느슨한 육하원칙으로 보는 '미션얼' \_ 지성근 목사
- 08 우리 동네에서 할 일을 찾았다! \_ 송기태 부대표

## People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Interserving People

- 10 미션얼 패밀리 \_ 정연철 이사
- 13 발견하다! 미션얼 피플 : 에밀리 김민스 \_ 공갈렙 선교사

## Ministry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All Things To All Peoples

- 16 EMK,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_ 정승연 선교사
- 21 미션얼 북 \_ 사랑으로 길을 내다

\*Creation Care

인터서브 프렌즈는 친환경적인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 시 스테플러 심을 제거해주세요.

## ■ 인터서브 칼럼

# 느슨한 육하원칙으로 보는 ‘미션얼’



지성근 목사 (일상생활사역연구소, 미션얼닷컴대표)

## 1. ‘미션얼’이 무엇인가요?

미션얼은 ‘미션’+‘얼’의 조합으로, 영어 ‘Missional’의 우리말 음차 번역<sup>1)</sup>의 하나입니다. 대개 미셔널, 혹은 미셔널이라고 음차번역하기 쉬운데 의도를 가지고 ‘미션얼’로 음차 번역한 것입니다. al을 순수 한글 ‘얼’로 번역한 것인데요 ‘얼’은 생각, 정신, 정서란 의미를 가진 순수 한글입니다. Missional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선교<sup>Missio Dei</sup>의 관점을 담고 있는 mission이란 단어에다가 -al을 더한 말로, 원래 영어사전에 없는 창의적인 신조어<sup>新造語</sup>입니다. 이를 번역하는 데도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을 지닌’이란 뜻의 라틴어 어근의 영어 ‘Mission’

1) 외국어를 받아들일 때 그 소리만 빌려서 자국의 문자 체계로 표현하는 것

과 한글 ‘얼’이 조합하여 창의적인 단어 ‘미션얼’이란 음역이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2. 왜 ‘미션얼’이라고 하게 되었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사실 Missional이란 영어 단어를 번역하는 데 지금까지도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역에 가깝게 ‘선교적’이라고 번역합니다. 문제는, ‘선교’라는 단어가 예수회 이후의 외방 선교, 개신교에서는 해외선교를 지칭하는 말로 줄곧 사용해 왔기 때문에 ‘선교적’이라고 번역하면 ‘해외선교 중심의’라는 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L.A에 계시는 유명 번역가 김재영 목사님은 ‘향 선교’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경우 동심원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역동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지만,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중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Mission이 ‘사명’이란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사명을 가진’이란 말로도 가끔 번역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용어를 접한 책 «Missional Church»를 만난 1998년부터 «새로운 교회가 온다»를 번역 출간한 2010년 어간까지 이 단어의 라틴어 어근인 Missio가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영어로 Sent 즉 ‘보냄 받은’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그 뜻을 잘 살리는 번역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2012년 12월, 준비하고 있던 컨퍼런스의 이름을 “교회2.0컨퍼런스”에서 “Missional Church Conference”로 바꾸게 되면서 새로운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김재영 목사님과 김선일 교수님 등 몇 분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단어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단어가 ‘포스트모던’처럼 한국어로 옮기기가 쉬운 단어가 아니므로 발음하는 대로 음차 번역하여 쓰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페이스북에 쓴 대로 ‘미셔널’이라고 밋밋하게 쓰기보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보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미션’에다가 -al을 정신, 태도를 의미하는 한국적인 단어 ‘얼’로 바꾸어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을 지닌’ 혹은 ‘보냄 받은 사명을 자각하는’이란 뜻으로 그 의미를 심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고 서로 그렇게 사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는 “미션얼 컨퍼런스”라는 새로운 한글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 미션얼 :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을 지닌, 보냄 받은 사명을 자각하는

2010년, “교회2.0컨퍼런스”로 처음 시작한 컨퍼런스는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2015년까지 6번 진행 되어 한국 교회에 미션얼 교회의 정신을 알리고 이미 존재하는 미션얼 교회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션얼’이란 용어를 만들고, ‘얼’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이 컨퍼런스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Missional Church 논의가 자칫 빠지기 쉬운 오류와 오해는 또 하나의 외국 신학과 프로그램의 수입 논의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Missional church의 재발견은 1990년대 중후반 구미 선교학계에서 일어난 일이고 용어의 생산과 의식의 확산의 시발점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면으로 Missional church 논의는 분명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의 추구이며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저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미국이나 기타 특정한 나라의 것이 아닌 성서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이천 년의 교회사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서 얼마든지 그 범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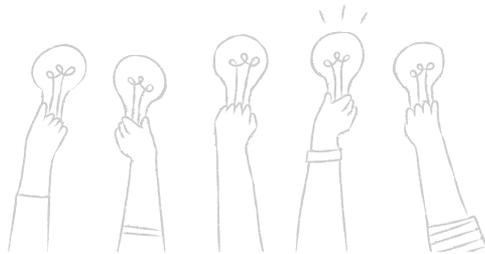
그래서 언제나 Missional church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저는 Missional church의 발단과 이론적인 전거들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이미 자생하고 있는 한국적 Missional church 이야기를 발굴하고 드러내는 것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Missional’을 ‘미션얼’로 번역하는 것은 “21세기 한국 상황에서의 Missional church 논의”를 하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과 비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점에서 ‘미션얼’이란 용어는 이런 성서적인 교회의 본질에 대한 추구와 함께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미 자생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사례들을 서로 나누고 확산시키는 데 하나의 관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 3. 그래서 어떻게 ‘미션얼’이 확장되고 활용될 수 있을까요?

2012년 당시 컨퍼런스의 이름에서 Church를 넣을 것이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

민을 많이 했습니다. 앨런 록스버그가 그의 책 «교회 너머의 교회»에서 말하듯이 모든 논의가 교회하기<sup>doing church</sup>로 환원되어 자칫 미션얼교회 논의 역시 또 하나의 교회성장을 위한 도구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Missional Church 담론은 훨씬 넓고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하기를 넘어서, 성도들의 삶과 생활, 교회의 선교, 세상 속에서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션얼'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사용하고 나니 이 모든 오해와 이해를 더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이름에서 과감하게 Church를 빼고 '미션얼'만 사용하여 "미션얼 컨퍼런스"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 이후 미션얼 논의를 단순히 '교회하기'와 교회 안에만 축소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션얼은 성도들의 일상생활과 일터에서, 정치를 포함한 사회와 문화의 영역에서, 심지어 신학적 관점과 성경 읽기, 그리고 해외선교의 영역에서 통전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미션얼 교회<sup>missional church</sup>만큼이나 미션얼 생활<sup>missional life, Life as Mission</sup>이, 미션얼 성경읽기<sup>missional reading of scriptures</sup>가, 미션얼 해외선교<sup>missional foreign mission</sup>가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 성장의 도구로서 미션얼이 아니라 진짜 태도와 관점 패러다임의 변화로서의 미션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일상생활사역연구소 : 1391korea.net**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일상생활로 보내시는 분이심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고 동참하는 개인, 공동체, 운동을 위한 연구, 교육·훈련,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 ■ 미션얼 Thinking\_선교적 교회 컬럼



# 우리 동네에서 할 일을 찾았다!

송기태 부대표

올 2월에 멀지 않은 동네로 이사를 했다. 그동안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새로 이사한 집은 빌라들로 구성된 곳이라서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아파트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빌라에 적응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집 앞의 작은 동산에는 동네 공원이 있다. 공원에는 배드민턴 운동장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늘 동네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배드민턴을 치며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다. 작은 공원이지만 운동 기구도 설치되어 있었고, 깨끗한 공원 화장실도 있어서 좋았다. 푸르른 나무들 사이에 깃들여 살고 있는 각종 새들의 날아다니는 모습과 지저귀는 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어서 즐겁다.

하루는 아침에 산책을 하려고 공원을 걸었다. 처음 걸어 보는 길이라 작은 동네 공원이지만 여기저기를 탐색해 보는 즐거움이 있었다. 그런데 한 벤치 앞에 쓰레기들이 난잡하게 어지럽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담하고 깨끗한 동산 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나는 봉지에 쓰레기들을 주워 담았다. 일단 담고 보니

공원에 드문드문 있는 쓰레기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들도 마저 줍고, 도로에 나와 보니 담배꽂초들이 보였다. 그것들도 주워서 봉지에 담았다.

얼마 후에 동네에 조성해 놓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고 갔다가 여기 저기 버려진 쓰레기를 발견했다. 15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주차장이었지만 잠시 주웠는데도 시장 가방으로 하나 가득 채워졌다. 그때 마침 구청 일로 동네 청소를 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주변을 청소하고 계셨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께 말했다. “주차장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할 테니 걱정마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밝게 빛났다. 그 순간을 볼 수 있어서 기뻐다.

사실 이 동네로 이사를 하는 과정은 그리 기쁘지 않았다. 4년을 적을 두고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집주인이 월세를 무리하게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사해야 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보니 이 집이 우리 가정에서 MK 호스텔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집 구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동네 동산 공원과 공영 주차장을 청소하면서 이사한 의미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선교적 교회 캠페인을 하면서 교회들이 지역 사회에 참여해야 함을 늘 강조했다. 그 지역 사회 참여는 선교적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다. 아파트에 살 때는 동네를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막상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동네일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새로운 동네에 이사한 후 내가 동네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뻐다.

그동안 선교적 교회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왜 그 지역에 살아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곤 했다. 성도들에게 주거에 대한 것도 주님께서 보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사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번 이사를 통하여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뻐다. 더더욱 기쁜 것이 있었다. 동네에서 할 일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랄까? 새로 이사한 동네를 위하여 아주 작은 일이지만 기여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다. 우리 동네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았다!!! 🌟



MISSIONAL Family

## 정연철 이사님



Missional Family

인터서브를 오랫동안 한결같이 지켜준 친구,  
은퇴 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보고 그 소명에 응답하고 있는  
정연철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Q1. 이사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부산 인터서브를 섬기고 있는 정연철 이사입니다. 저는 약 36년 동안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작년 8월 말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친구 장로와 함께 부산에 “케냐해기교육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가진 달란트를 활용하여 미력하나마 케냐 해기 교육(선원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Q2. 선교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 제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부산 인터서브의 기도모임을 통해서입니다. 인터서브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선교 보고, 그리고 부산 인터서브 이사님들의 선교적 삶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Q3. 인터서브는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나요?**

» 정확한 년도와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1990년대 중반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가깝

계 지내던 부산 인터서브 안종영 이사의 권유로 부산 인터서브 기도회에 처음 참석하게 되면서 인터서브와 인연을 시작되었습니다.

**Q4. 오랜 시간 동안 인터서브 이사회로 함께 해주셨고, 지금은 해운대에 있지만, 영도에 있던 안식관을 사모님과 함께 관리를 하시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인터서브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 부산 인터서브가 자발적인 헌금으로 1990년대 말 안식관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안식관 구입을 통해 부산 인터서브 이사님들의 신앙적 유대가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Q5. 이제 곧 이사님께서 케냐로 선교를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계기가 되셨을까요? 어떤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지요?**

» 저는 1985년 말 모교에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기독 학생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은퇴 후에는 외국의 해양대학에서 교수로 봉사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으셔서 퇴직하기 3년 전 친구 장로를 만나게 하셨고 함께 케냐 해기교육\*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원船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한 기술)

구체적으로 실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1) 케냐 해양계 학생들의 국내 선박에 승선 실습 지원, (2) 케냐 학생들의 국내 대학원 유학 지원, (3) 케냐 해기교육기관의 강의 지원, (4) 케냐 정부에 선원 정책을 포함한 해운 분야의 정책 자문 등입니다. 이는 저희 두 사람이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현재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케냐 해기교육기관에 대한 강의 지원은 잠시 지연되고 있으나 여건이 허락되면 바로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Q6. 먼저 선교적 삶을 살아오신 선배이자, 동역자로서 인터서브 프렌즈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격려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 지나고 보니 우리의 인생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터서브 프렌즈 여러분들께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만큼

가치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Q6. 선교적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하고 기쁜 삶

**Q7. 이제 새롭게 시작될 이사님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위해 저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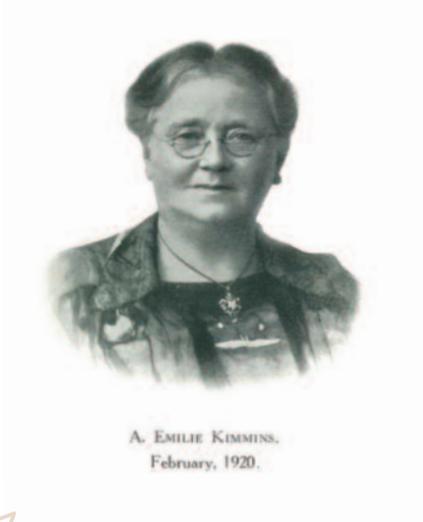
- » 1. 케냐 해기 교육 지원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센터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이를 통해 다음 세대에 케냐와 아프리카의 부흥을 가져올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양육되게 하옵소서.
- » 2. 센터가 실행하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위해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 » 3.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卍



*Missional People*

# 뽀쯔가니의 어머니 에밀리 킴민스

공갈렙 선교사



A. EMILIE KIMMINS,  
February, 1920.

에밀리 킴민스 A. Emilie Kimmins는 1886년부터 1921년까지 주로 인도 중부의 뽀쯔가니 Panchgani에서 교육사역을 했던 ZBMM 선교사입니다. 당시 ZBMM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사역에 주력하였는데, ‘뽀쯔가니의 어머니’에밀리 킴민스 역시 학교를 세워 교육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선교적 삶과 사역은 2022년 현재까지 킴민스 학교 역사 속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 한알의 밀알이 된 언니의 선교 헌신

### - 선교에 헌신한 믿음의 가족

선교 사명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함께 섬긴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에밀리에게도 먼저 인도 선교사로 떠났던 언니 제니 킴민스가 있었습니다. 1883년, ZBMM 소속으로 바라나시에 가서 교육사역을 하던 제니 선교사는 그곳에서 만난 J.W. 홀 목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니 선교사의 인도 사역은 2년만에 끝났습니다. 1880년대 인도는 극심한 가뭄과 기근, 전염병으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니가 있었던 바라나시도 큰 피해를 입어 많은 외국인들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놔두고 떠날 수 없었던 그녀는 그곳에서 사역한 지 2년 만에 몸이 급격히 쇠약해져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도 선교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동생 에밀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886년 에밀리는 언니가 사역했던 바라나시의 제나나 교원양성학교<sup>The Normal School</sup>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그녀에게 그곳에서의 시간은 인도 여성과 여자아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미션 스쿨, 킴민스 학교<sup>Kimmins School</sup>의 설립과 비전

### - 기독교 학교 역할의 확대

1898년, 에밀리 킴민스는 뽀쯔가니에 그녀의 이름을 딴 남녀공학 기숙학교, 킴민스 학교를 설립합니다. 킴민스 학교의 설립은 당시 제나나 학교의 기본 패턴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1892년부터 뽀바이의 퀸 메리 학교<sup>Queen Mary School</sup>에서 여학생을 가르치던 에밀리는 그 지역을 휩쓴 기근과 전염병으로 많은 외국인들과 혼혈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기후가 온화한 고지대에 이런 아이들을 위한 기숙학교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에밀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인도의 여성과 여자아이들을 위해 왔는데, 외국인과 혼혈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필요를 외면할 수 없었던 그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어렵게 기숙학교를 세우는 동의한 에밀리의 결단은 제나나 선교회에도 다른 교육 사역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안도시 뽀바이에서 내륙으로 약 240km 떨어진 뽀쯔가니는 해발 1,293m의 연

중 온화한 기후로 인해 기숙학교로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1898년 개교한 이래 은퇴하고 1921년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김민스 학교에서 사역했습니다. 이곳은 초기의 목적대로 외국인 및 혼혈 학생들로 시작했지만 점점 인도인 학생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스 학교가 무역과 상업에 종사하는 등 직업상 거주지를 수시로 옮겨야 하는 인도 중산층들에게 자녀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좋은 기숙학교의 대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지의 필요에 반응하는 선교사의 유연성이 오히려 더 폭넓은 사역의 접촉점을 만드는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초기 남녀공학으로 시작했던 김민스 학교는 1902년 여학교 김민스 학교와 남자 기숙학교인 성 바울 학교St. Paul School로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된 성 바울 학교는 훗날 그룹 퀸Queen의 리드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공부했었던 곳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 김민스 학교의 변화와 현지화

### - 지속 가능한 선교 사역의 모델

인터서브는 1960년대와 70년대 인도에 있던 선교회 소유의 재산을 현지인 단체에 이양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김민스 학교 역시 1973년, 인도 기독교 의료 및 교육 협회에 최종 이양되었습니다. 그 후 인도인 법인에서 지금까지 이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자인 에밀리 김민스와 제나나 선교회로 시작해 남녀 공학이 분리되고, 인도 법인의 소유로 이전하는 여러 변화 속에서도 학교가 추구했던 정신은 한결같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학교 교육 철학이 ‘오직 사랑(only love)’이었다고 자신의 글에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산과 권한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선교도 위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선교사가 선교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돕는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때 지속가능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김민스 학교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선교사는 누구이며, 왜 그곳에 있는 것일까요? 타문화권에서 주인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현지인들을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에밀리의 삶과 그녀가 세운 김민스 학교의 역사를 보며 깨닫게 됩니다. 단순한 진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평생 실천하며 살았던 에밀리를 통해 우리는 선교적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 인터서브 필드

## EMK,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 MK 모임 ▶ EMK 위원과 MK들의 식사 교체

정승연 선교사 (EMK 코디네이터)

2020년 12월 어느 날, 한 만남으로부터 EMK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샘 대표와 인터서브 이사 한 분, 그리고 그분의 친구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최근 학비로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인도 선교사 가정을 만나게 된 두 분이 선교사 자녀(이하 MK)의 필요를 채우고, 돕고 싶다는 마음에 조샘 대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첫 모임을 마친 조샘이 그동안 MK들을 위한 호스텔을 운영해 온 나에게 MK들을 돕는 장학회 일을 맡아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인 송기태 파트너가 이 일을 함께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함께 EMK 사역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학회는 인터서브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생소한 사역이었습니다.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기금을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창조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장학회처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형성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장학금이라는 필요를 통해서 MK들과의 관계 맺고, 교체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학습적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MK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MK들을 응원하는 Empowering MK, EMK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MK를 후원하는 모임에 MK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주셔서 키르키스스탄 MK 김인선 형제를 위원회에 영입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로 두 명의 MK를 멤버케어 부서에서 추천받았습니다. My story라는 지원서에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온 이야기와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나누도록 부탁했습니다. MK들의 My story를 읽으면서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지, 또 그 아이들이 부모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순종해 왔는지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기뻐합니다. 처음으로 두 MK를 선발하여 두 학기를 후원했고, 정서, 학습, 신체 장애 MK를 돕는 E2S 프로그램에서는 6명의 MK들의 상담과 치료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2차 장학생 모집에는 2명을 더 추가하는 목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자녀들의 대학 학비에 대한 부분은 워낙 민감하고 절실한 부분이어서 기도하면서 진행했습니다. 2명을 선발하는 모집에 4명이 지원해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4명 모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남지도 않고 모자람도 없이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6명의 EMK 장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정기적으로 EMK 위원회의 카톡방에 전달합니다. 위원들이 장학생들의 상황을 알고 함께 기도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드림이는 가끔 연주한 영상을 보내오곤 합니다. 예인리와 우리 부부는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국에 와 있는 지성리와 MK 호스텔 게스트였던 찬민이, 소명이를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에 온 예인리와 지성리, 그리고 EMK 위원들이 만나서 식사 교제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6명의 EMK 장학생들은 'EMK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격월로 온라인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먹하지만, 학교생활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애를 겪고 있는 MK들과 부모들이 격려받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주 안에서 함께 나누고 서로를 의지하는 inter-serving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인터서브의 소망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Building the next generation!!!** 🌟

## “EMK” empowering missionary kids

### ■ 목적

- 1) Empower to Grow(E2G) : 대학생MK 장학금을 지원하고 관계 형성을 통해 성장을 돕는다.
- 2) Empower to Stand(E2S) : 정서, 학습, 신체 장애 MK를 돕는다.

### ■ EMK 운영회

- 1) EMK의 방향과 의사결정 사항 논의
- 2) 기부자 2명, 본부 파트너 4명, MK위원 1명

### ■ 운영 프로세스



### ■ 지원 내용

E2G: 1년 단위로 소정의 학비 지원

E2S: 단회적, 혹은 장기적인 치료/상담교육비 지원, 기도지원, 멘토링 지원

### ■ 후원 계좌

EMK 기금은 MK들의 학업과 정서, 학습, 신체 장애의 어려움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하나은행 079-04-0000511-1 인터서브 (EMK 기금)

재정 후원 문의 : 031-778-7931, 인터서브 재정부

기금 운영 문의 : m3lody0808@gmail.com, 정승연 선교사

## 순종과 공급을 배우는 기회

선교사 자녀로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해 매우 다양한 기대와 선교사에 대한 특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것도 선교사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이예인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저는 부모께 반항하며 죄 된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저는 에베소서 2장 1-10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공홀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후 주님께서는 저의 삶이 저의 것이 아님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께서 저를 선한 일을 위해 창조한 그분의 작품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한 저의 첫 과정은 미국의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과정으로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저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의 축복과 확신의 문을 열어준 것이 EMK 장학금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없는 유학생으로서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걱정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제약이 많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EMK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자라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EMK는 저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의지하는 방법들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학비의 장벽을 뛰어넘어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장해야 함에 집중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EMK와 인터서브 공동체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卍



## 비전을 응원해 주셨어요

저는 MK(선교사 자녀), PK(목회자 자녀), TCK(제3의 문화 자녀)로서 한국, 몽골, 중국, 독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성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성장하는 것은 항상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환경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안했던 과거의 경험들을 치유해 주시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박한나

저는 현재 하버드 교육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와 C.A.S(예방학 및 실습 학위, 학교 적응 상담 면허)로 2년 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친 후 몇 년간 학교 상담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 분야의 박사과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는 2년 전에 대학원에 합격했지만, 학비를 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생각하시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버드 대학원 프로그램의 첫 과정이 끝나고 저에게는 2학년 과정을 등록할 충분한 학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도 교수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가 우리를 부르시면 항상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프로그램에 전념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EMK 장학금을 비롯한 여러 장학재단으로부터 재정을 채워 주셨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상담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동안 MK로서의 경험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는 MK로서의 장점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MK이기 때문에 카운슬러로서 다양한 문화에서 온 학생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필요에 적절히 조언하고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대학원 과정을 지원해 주시고 비전을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사랑으로 길을 내다

(북한에서 이루어 가는 화목의 이야기)

윤상혁 지음 / 두란노서원, 2021년

## 저자의 북한살이를 통해 본 선교적 삶의 특수성과 보편성

저자는 사단법인 선양하나의 대표이자 북한 평양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이다. 그는 한국에서 자란 미국인 아내와 다섯 자녀들과 함께 북한에서 살고 있다. 평양 김일성 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곳에서 의대 교수를 하는 등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책을 통해 선교적 삶을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

## 편견 깨기를 배우다

그는 많은 오해와 편견이 가득한 땅, 북한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북한의 한 고위 간부의 두통을 치료해 주었는데, 그는 한 의사에게 저자의 종교를 물었다. 저자가 기독교인임을 알게 되자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여 보였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저자를 잘 도와주라고 북한 의사들에게 요청까지 했다는 것이다. 무교인 북한 간부를 통해 복음이 선포된 상황이었다(p.69-71). 놀랍다. 북한에서의 특수한 상황인데 타문화, 타인에 대한 편견 깨기의 보편적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배우게 된다.

## 그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삶

2부에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소개한다. 특히 혼자가 아닌 '함께가 필요했음'을 깨닫는 저자의 글에서 도전이 되었다.(p.139), “이곳에서의 복음은 성경공부를 함께하거나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과 신앙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 씀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말이다... 높은 벽을 뛰어넘는 방법은 꼭 담을 부수는 것만이 아니다. 연 약한 담쟁이 잎이 서로 이어지고 이어져 그 담장을 훌쩍 넘어갈 수도 있다.”

## 화목케 하는 사명

3부에선 아픔의 땅에서 화목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임을 알려준다.(p.18), “사랑은 나의 시간표에 맞춰 상대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시간에 나를 던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자리에서 만나 주셨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책의 부제, ‘북한에서 이루어 가는 화목의 이야기’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동일한 삶의 자세를 도전한다.

## 오직 그의 사랑에 매여

4부에선 사랑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의 결론은 확실하고 단순하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이다.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중국 출신 야곰과 조지아에서 태어난 에스더의 입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가족을 보면 감동과 도전을 받는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의 몫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다시 한번 북한을 향한 나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함을 느낀다. 정치와 이념을 넘어서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의 삶에 도전과 소망을 느낀다. 신앙인의 삶은 진리라는 무기로 타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책 저자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된다. 북한과 선교지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또한 그렇게 바뀌어 가기를 기대한다. **✎**

공갈렙 선교사



인 터 서 브  
**프렌즈**

통권 144호  
2022 Summer

### 우리는 누구 입니까?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아랍과 아시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 비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 핵심가치

1. 하나님을 의존함 2. 공동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4. 파트너십 5. 온전성 6. 총체적 7. 종 된 섬김

인터서브 계간지 2022년 봄호 통권 144호

발행인 조샘

편집인 이나라

발행일 2022. 6. 20.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1206

전 화 031-778-7931 팩스 031-728-4777

이메일 [interservekorea@gmail.com](mailto:interservekorea@gmail.com) 홈페이지 [interserve.kr](http://interserve.kr)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nterservekorea](https://facebook.com/interservekorea)

디자인·인쇄 피터플 010-3373-3750

<인터서브 프렌즈>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INTERSERVE KOREA

*experience*  
**Life As Mission**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동-1206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우)13616 Tel : 031-778-7931

Fax : 031-728-4777 Email : [interservekorea@gmail.com](mailto:interservekorea@gmail.com) H.P : [interserve.kr](http://interserve.kr) FB : [facebook.com/interservekorea](https://facebook.com/interservekorea)